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論說

東津水利組合問題

多數를犧牲은不可

一

水利를開拓하야 米穀을增殖하면 農民의生活이넉넉하여지고 社會의富力이딸하서增進되는것이니水利組合의事業을贊成치아니할理由가업다 그러나水利組合이 잇슬적마다 반듯이朝鮮人農民의 怨聲이놉허지고 여긔에利害가서로背馳되는兩個集團의對立이잇고 現下의朝鮮이실시고잇는現實의大煩悶이잇다 全北金堤 井邑 扶安三郡에걸쳐잇는東津水利組合의建設工事가進行됨에따러 鄕土住民인被害民相助會員과同組合當路의사이에地價賠償問題로因하야困難한係爭이생겻고因하야 工夫와의사이에 流血의慘事를보기까지되엿스니 이러한不幸이朝鮮人인理由로서 當然이堪受할바이라할진대 朝鮮人은그쯤如何할수업는運命에一層發奮하여야할것을 指示함이오만일이理由가업다할진대 맛당히被害民의要求에應하야 圓滿한解決을엇하여야할것이다

二

水源貯水池는井邑郡山內面과任實郡雲岩江津兩面의接界인舟所라하는地點에設置하기로하고 高히九十五尺 길기一百四十四間의堤防을쌓아서六百三十八町의貯水面積으로 周廻百八十里延長六十餘里의蒙利區域을管轄하게되며總經費七百萬圓을要한다하니 그浩大한工役과巨額經費가現下屈指할大事業인것을首肯할것이다 그러고鄕土住民被害의狀況을一考하건대井邑任實兩郡三面十個洞里四十餘部落에써치어浸水밋被害의家屋 四百九十一戶三千八百三十四人이오 宅地와田畓으로貯水面積속에잠기는것이九十三萬八千六百九十七坪에達한다하니 그만한蒙利區域에비취어必然한일이라할것이다 이밧게다시被害林野가잇다하니 그의處置如何에따러서鄕土住民의休戚의關係가 매우큰것을斷言할수잇다

三

社會의富力을增進하고 外民生의生活을改善함에臨하야 一時的의不便을참는것은 勿論當然한일로서 原則으로서이를非議할바아니나 만일損害가充分히賠償되다할진대 累代生長한鄕土일지라도 被害民은 그愛着心을犧牲하고 安住의地를새로히開拓한다함이 當然할것이다 그러나 特殊한 一部集團의富力을 增進하고 그의 生活을豪奢케하기爲하야 多數鄕土住民의僅少한財產을거처滔天하는白浪의中에 잠겨버리라하는것은 그不合理함이明言을要치안할바이오 그의侵害되는利益을擁護하야 外威脅되는生存을回救코저 被害民의團結을實現한것은 正當한權利로서아무不穩의意味가업는것이오 그의要求는尊重히酬應되어야할것이니 이에對한拒否 恐嚇 밋暴虐은곳罪惡을意味하는것이다

四

公定地價三十六圓 移住移買等의 費用으로 慰藉料名目의 五圓五分을合하야 合計四十一圓五分의賠償을 支出키로하엿다하니이는關係當局의唯一또好大한口實로서 그誠意를자랑하는바일것이다 그러나水利組合이 다만所謂國家社會를爲한다는名分上의問題가아니오一便으로嚴然히巨大한收益을엇는營利區域의 地主들이잇는것이니 被害者의不測의損失은 充分한賠償으로 그生存을保障함이至當한일이다 各地의實情에依하건대 土地賣買의價格이 항상公定價額의六割乃至七割에미츠니 이는被害人民의利己的引水論으로妄斷할수업는일이다 이에不計하고 組合當局은연방不法또는卑劣한策略을弄하고 地方行政의當局外지도 또한被害民의利益을爲하야忠實히하지아니할진대 그의不當함은過去도또한譏破할것이다 水利組合問題는東津에限한바아니오 全朝鮮到處에잇는것이라 各當局의良心잇는處置가絕對로必要한것이다

葡萄牙의革命 全國에擴大

首府리스본도戰禍中에

(巴里三十日發) 『리스본』으로부터의報道에依하면葡萄牙革命軍에는葡萄牙의二大都市인『리스본』『오폴드』의兩師團도參加하야革命戰은全國에擴大되더라

英國產業의危殆

諸新聞一齊히報道 ◇……原因은同盟罷業

(倫敦二十九日發) 英國諸新聞은諸產業의罷業으로因하야危殆에瀕하엿다고報하더라

奉天軍隊의內訌

給料不給으로一部叛亂

(奉天三十一日發) 西豐縣掏鹿에駐屯하는奉軍(元馬賊仁義軍部下)의三個中一、三의二個約一千名은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不穩한形勢가잇서드대여城內東北蠻을中心으로掠奪放火를開始하야此에贊成치안는第二個隊는維持가危險케되여徐團長은西豐商務會長과함께鎭撫에盡力하는中이나交涉成否는未定이오原因은奉票下落에因한給料不給이라더라

鎭壓軍과砲火相交

形勢去益不穩한奉軍內訌

(天津三十一日發) 昨日京津間의汽車는不通이되엿는데原因은北京南方에駐屯中인山東軍一部隊가給料不給으로不穩한形勢가잇서鎭壓軍이그武裝解除를迫코저砲火를交한外닭이라더라

奉天軍騎兵이 日本人家屋襲擊

張作霖은惶急히鎭定命令

(奉天卅日發) 二十九日午後二時滿洲開原附近에第廿四師의騎兵一部가出現하야日本人家屋一軒外六軒에至하야掠奪을하고附近十里되는地點으로引退하엿는데張作霖은地方官憲에對하야嚴重히鎭定하라는命令을하엿더라

三省人心惡化

奉票慘落의反響

(奉天電) 奉天票價格의日復下落으로暴動이이러나지아니할는지알지못함으로當局에서는此의豫防策으로官吏의俸給을現大洋으로改하엿스나只今三省民은擧皆當局의施政을咀呪하야人心은漸次惡化中이더라

憲研聯立 餘望이尙存

憲政某幹部談

(東京電) 研究會의入閣은全然絕望과如히傳하고잇스나余는아직어느程度外지希望을棄치안는다 何故오하면研究會는旣히現內閣과커지안흔諒解下에政務官을任命하고同時에政局安定에힘을써온것이다그런데只今內閣缺員에對하야首相으로부터誠意를가지고熱心으로入閣을식히려함에對하야此를辭할理由가업나니萬若入閣을拒絕하게된다면政府와研究會의間에조치못한關係情勢가생기기前에는안될일이다 寧히憲本聯立不成立의結果研究會中의本黨系라고보는一部及政友係의某種의妨害運動은起하엿다고하더라도研究會의中心勢力은此로因하야政府와阻隔하게되리라고思치안는다그러나政界의事일은往往豫想外의結果를招來할으로如何한狀態를惹起할는지도알수업스나마츰내入閣을拒絕하게되면政務官도如何間辭任을豫想치안흘수업게되면如斯하면政界의前途는樂觀을不許한다若槻首相도如此한것은認定하고잇슴으로目下懇切히諒解에努力하는것이라고思하나그러라고너무遲延하여서는政府의威信에도關係됨으로攝政殿下의還啓를期하야如何던最後의處置를取할터이다그런데研究會가遂히入閣不可能이判明되면다시繼續的인交涉을하지안코研憲聯立은暗中에사라저外道時單獨內閣組織에나아가事任內相과後任相을補充할터인바此際에內相의椅子를犧牲할가能塩될에就하야或은濱口君이라하고或은安達君이라고하나長者濱木聯立交涉의際에首相이特히濱口氏를招致하야現內閣은旣히財政政策의中心을斷行하얏고今後에來할總選擧에當하라면內務行政에最히力을注치안흐면안되겟슴으로此際에內務에轉하야努力하여달라고諒解를求한結果로보아濱口氏에對하야는大殿에그대로잇슬이라思치아니한다云云

東津水組工事와 被害民慘相

全北記者團調查發表(二)

하자는一種의術策으로便然케할이라하야水組에對한憤痛과怨恨은한층에漲溢하는터이라더라

白衣族된것만恨歎

相助會代表 洪淳浣氏談

山間僻地의遼路임도不拘하고이처럼차저주시니感謝합이니다우리는남모르는설움을이만큼當하고잇슴니다버것을내것이라할수도업고人生이라는權利도가지지못한이處地를엇더케할는지가한갓白衣族된것만설업다할는지오우리는所謂爲政當局者인그들도맛지안흐며오족한線우에선불상한

賣笑的道當局

道評議員이와斡旋

道民의生命財產과安寧을爲한다는所謂爲政當局인野田內務部長은前記交涉委員을恐言威脅하든그翌日인五月五日에任實人인崔宗烈이라는道評議員을中間에노와서旅館으로交涉委員一同을訪問케하야彼此가强硬히할것이아니라圓滿히打協하는것이조켓다하며內務部長이다시보기를願하니가자고强勸함으로一行은드러갓섯다는바어케外지敵對視하든野田部長은態度를豹變하야苦笑를마지안흐면서서히『道廳에서諸君에게한말이失禮이엇는줄모르겟노라그것을果히허물치마라주기를바란다』고例의愛嬌를부린後被害의土地를他地로交換해주면엇더한가하오로相助側은그도關係치안흐나東拓所有地는何處를不問하고絕對로讓치안컷스며土地의等級을三等級外지올려준다하면換替에當하겟다하얏든바內務部長은二等級外지는許하겟다함으로相助側은査定한土地等級이各郡을따라相異한터로他郡의土地로三等級을올려준다할지라도도로혀損이며二等級外지는水組側에서도言明하엿든것이라고拒絕하매野田氏는三等級外지는到底히不可能하다하야이날에交涉도何等效果를奏치못하고헤여젓는바道當局으로서人民을庇護치안코水組側만擁護함은公正한當局者의措置가아니라고怨恨의눈물을저우며白衣族의身勢만咀呪하며最後外지正義에싸와生死를決하리라하더라

工夫들의行悖

非人間的行動極甚 이것이水組側所使

工事場에는數千의無賴漢들이流集한탓으로아모意識업는그들의行悖는極甚하야沿岸地元民의家屋에侵入하야衣食을强請하며또는甚至於婦女들에게外지禽獸의行을敢行하야못할짓이업슴으로住民들은激昂하야反抗하라도到底히相對할수업슴으로極度로不安中에陷하야一日이라도亂을避코저한다는바이는水組側에서일부러相助側을苦毒케하야離散케

土地收用令을쓸터

東津水利組合長 亥角氏談

工事의現場이며相助會를보고오셧스니모든것을짐작아시겟슴니다나橫暴하느니하지마는내생각으로는그런일은업는듯합니다相助會側主張이너무甚치안흔가함니다그리고諸般事를道當局에맛겻사오니그指揮措置대로우리는할作定입니다土地交換問題는三等級으로拈拾하고二等級도肯從치안켓스며一等級을요청여줄心算도잇음니다그리고正히相助會側에不應한다하면畢竟土地收用令에依할밧게는업겟지오工事現場에서兩便의血鬪가잇는것은심認치안슴니다大概主任이指揮暴行하엿다고요?그리햇슬理가업슬줄밋으나當時光景을보지못하엿스니할수업고그배請願巡查外지相助會員들을따렷다고하나엇재서非難가그처렴㷚하기外지放置하엿든가는疑心하는바이올시다그배모든것을더仔細히살펴서事實이라면相當히處分하겟스며工夫들의悖行外지도徹底히단속하야住民에게조곰도不快를맛치지안토록할作定입니다여러분에서도諒解하서서好意로의報道해주시기만飄乞합니다(終)

他人의書信을披覽타가被訴

犯過의動機提供은傳便配達하는郵便

全北金堤郡竹山面竹山里朴永七具與贊兩人은同里盧炳洙에게私信竊盜罪로告訴를當하야方今取調를밧는中이라는데其內容을聞한則前記朴永七은路邊에서商業을經營함으로그洞里로가는郵便物이면흔히配達夫가付托하는事가有한데本月三日에도亦是配達夫가前記盧炳洙에게傳하여달라고付托한바當人에게傳치아니하고前記具氏와共히開封盜覽後그대로어떤것을盧氏가見하고그와가티告訴를提起한것이라는데一般與論에依하면同面內에는配達을當人에게直接傳致치아니하고酒店이나商店等에付托함으로中間에서紛失되는이非一非再이던바此次如此한問題外지起케됨이라고慨歎한다더라(金堤)

汶幕電話開通

六月一日부터

原州郡建登面汶幕은商業의發展이原州의第一地로至于今京城汶幕間即通電話가되지못하야一般商業家에서는매우遺憾이던中四月頃本報支局總務李良氏가出張하야商業家其他有志三十餘名通名으로遞信當局에請願한結果去二十八日에許可되여來六月一日부터開通된다고一般은歡喜中이라더라(原州)

雙岩市場許可

正式開市는六月十五日

全南順天郡雙岩面에서는市場新設問題로客年十月부터市場期成會外지組織하고一邊으로許可願을提出하고一邊으로臨時開市하야各方面으로活動하는同時成績이매우良好하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去二十四日同市場이許可되엿슴으로同期成會에서는去二十七日委員會를開催하고各項을討議한結果正式開市日字와經費問題와其他施設事項을左와如히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開市日字는六月十五日(陰

一、經費豫算은三百六十圓으로할事

一、經費는有志의同情金으로할事

一、宣傳文을近邑各市場에散布할事

一、各官公署請牒은面當局者에게一任할事

一、設備委員選定의件

一、餘興準備委員選定의件

一、來賓案內委員選定의件(順天)

端川郡農會 乾繭場新築

咸南端川郡農會에서는年年管內의蠶業이發達됨에따라從來와如히產繭은乾繭을廢止하고全部生繭으로取扱하는關係上乾繭場의狹隘를感하야昨年度에도管內產繭額이三千六百五十八石의蠶繭이有한바이를買入後乾繭함에는큰不便이잇서따라損害도不少하야將來同郡蠶業에큰影響이有할을痛切히늣겨今年度에는一回四十石入의大規模의乾繭場을新築하기로되여過般建築에對하야競爭入札에附한바建物建築費三千一百八十五圓으로同郡邑加藤雅人에게落札되여目下工事進行中인바竣功期는六月二十六日外지라하며同乾繭場竣功後는四五年間은乾繭에不便이無하리라고(端川)

南浦里一帶浸水 苗代麥田大打擊

◇…浸水의重要原因은 多木農場堤防으로排水不能

全北金堤郡聖德面南浦里에는通日暴雨로『苗代場』이數百斗落分과大麥田若干이浸水되야被害가多大하다는데其詳細를聞한則南浦前에는數年前當地多木農場에서貯水池를設置하고堤防을高築한結果排水가되지못하야浸水되엿슴으로被害民들은農場關係者에게該堤를決하라고數次交涉하엿스나不應하야그와가티되얏다고多木을怨望한다하며若三日間만浸水가繼續하면數百斗落의畓은荒蕪地가되겟슴으로一般은一日이라도速히排水口를設키를바란다고(金堤)

●丙城女靑委員會 慶南丙城女子靑年會에서는去二十九日第三

大同共助會組織

坡州郡

坡州郡炭縣面大洞里에서는同里有力者車濟輔賀仁承車和成三氏의發起로大同共助會란社會事業團體를組織하야在來의惡習을改善하는同時古來의美風良俗을獎勵하며배우려하여도敎育機關이업서서現代文明의智識을엇지못하는無產靑年들을爲하야서敎育機關을施設하고一方으로는나날이退步하여가는農村經濟를振興키爲하야水害救濟金錢額中으로繩綯機二十八臺를購入하야閑散한夜間을利用하야以製造를實行하며所得金額中으로每月一人當二十錢式貯金하는等社會에多大한貢獻을期한다더라(坡州)

◇揭示板寄附 江原道三陟郡近德面交柯里黃興吉氏는當年四十八歲의中老로當地近德靑年聯合會에서一般事業에非常努力함을感하야現金十圓을供하야當會의揭示板設置를依賴함으로即時設置하얏는바一般靑年團에도揭示使用을歡迎한다하며會員一同은氏의時志를感謝한다고(三陟)

東明學院動搖?

院長도辭職

慶北盈德郡三思東明學院은原來同學院을維持할만한財源이업고다만學生의授業料와一年一次式地方有志의義捐金으로僅僅히學院의體面을維持하는中學生半數以上은授業料를六朔乃至一年外지未納한學生이多하야當務者의苦痛이不少한中今般五六學年中二三人에主動으로突然學院에關搖를起함으로院長金鹽培氏와後援會長及敎員一人은辭職하고下回를觀望中이라는데今般該事件은學生十數人에自由行動이라云云하나그內幕은某의反動的意思에서出함이라하야一般의物論이藉藉하다더라(淸州)

帶方面蠶業獎勵

南原

郡帶江面地方은耕地面積이廣大하고地質이肥沃하나水利의不便으로頻頻한旱害에住民生活이困窮莫甚하던바該面長李梁氏는此를關係에對하야多年硏究한結果今春부터蠶業獎勵의目的으로桑苗十萬本을一般面民에게配栽케하엿스며年年히繼續獎勵할터이라는데氣候와土地가蠶業에가장適當함으로此地方은一大蠶業地方을化하리라고一般은企待한다고(南原)

金雲波君에게與함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金雲波君!나는君이朝鮮日報第二〇四六號紙木鳥欄을通하야『元山體育과義捐金』이라는題目아래에妄發의冒句를느러노흔것을보앗다이것은事實君等의日常業態가非人非劣한行爲에比하여마는根據업는論說을가지고社會의果실에서는歎過할수업서君等의公憤인듯한冒辭의背後에時代錯誤된頑陋派의吐업는獨占的野心이숨어잇슴을指摘하려한다

◇元來元山體育會로말하면創立以來로荒廢不振한狀態에잇서『피닷』는靑年들이恒常遺憾으로생각하여오든바只今으로부터約一個月前에 몃몃靑年들이會館建築과具設備等을目的하고元山人士諸氏에게同情을求하야良好한成績을어더오든바이것을君과가튼分子들이好價收用하야事務를敢行하려고內部에失入하게된것은當者인君이더잘알것이다

◇君等은野卑하게我等을無禮하려하엿스나그러나我等도생각하여야할것은以上의君과가튼에게屈하지안흠다한것도事實이다그럼으로我等은此에對한一切事業을君等에게맥기지아니하고圓滿한收集하야適當한處置를하라고積立한바이엇다

◇君아!여긔에君의野心이淘淘한『義捐金浪費私慾充當』云云의讒無한論據가잇는가?萬若이와가튼傍若無人의論據로我等을中傷하려아니하엿다하면못노니君等의論斷은어대잇는가?或은君等의野卑한獨占的政策의反感을가젓다는말인가?또는終日救困한다리를하엿다『椅子에시거하엿다』는말인가?委內容을明確히게論證한다는말이?나는千子히말하지안흔러한다마는그날그날若干의費用도個人個人으로도多少間擔當하엿다는無職靑年의誠意를생각하라 그리하야虛無한中傷的冒句를發하지말어라

◇마즈막으로 忠告하는것은 距今七八年前두고『財界恐慌』云云하는『歐洲大戰亂의影響으로』로寶賤漢의經濟學理論과『嚼人은다만斷腸의淚를禁치못한다』自校의言詞는제발쓰지말어달라는것이다(全鮮)

一種의 伸聞皷

安邊靑聯에서 不平投稿募集

咸南安邊靑年聯盟會에서는郡內에潛在한一切의不平을蒐集코자去二十九日(陰四月十八日)安邊邑內市日을利用하야宣傳비라를散布하엿다는데投稿規定은左와如하다더라(安邊)

△投稿規定

一、地域은安邊郡으로함

二、材料는實例와證據될만한事實에限함

三、投稿者에對한一切責任은本聯盟이負함

四、投稿者住所氏名을本聯盟外에記送함을要함

五、投稿期日은六月二十日(陰五月十一日)外지로함

六、原稿는返還치아니함

七、投稿場所는安邊邑登州靑年會館內又는新高山靑年會館內安邊靑年聯盟으로할일

●龜城靑年會創立總會 龜城에서는于今靑年會라고는一個所도無하야一般의遺感이던바有志의熱誠運動으로去二十五日當地天道敎宗理院講堂에서靑年會創立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金在熙氏司會에會則을通過한後左記諸項을決定하엿다고

△任員 會長李益鎭 副會長金在熙 總務車斗南 幹事李浩白 朴鳳潮

△決議 一、細則制定의件 一、各部設設의件 一、會員募集의件 其他(龜城)

鎭川郵便改善

忠北鎭川郵便所에서는郵便物을全部天安自働車로運搬하는데每日一回式으로出發은午前八時三十分到着은午後四時이엇던것을迅速

平壤과南浦에 西鮮共進會

開港卅週年紀念으로 平壤商議와提携要望 南浦商議決議

鎭南浦商業會議所에서는去二十九日同會議所樓上에서重役會開會로評議會를開催하고十四年度歲入決算案歲入一萬二百二十三圓九十六錢歲出一萬六圓十七錢歲入出殘高二百十七圓七十九錢에對한報告가잇슨後會計再檢查說로一時物議가紛紛하엿스나結局그대로承認하기로되엿스며賦課金滯納者處分의件은原案대로十三年度부터三年間繼續滯納者中死亡移居로因한不可收의分은全部削除하기로하엿스며番外城野書記長으로부터事務報告가잇는後死亡常務委員藤本氏代의補選常務委員은無記名投票의結果八對一로伊丹儀平氏가當選되엿고次에西鮮共進會開催에對하여는平壤商業會議所와提携하고補助金其他를當局에要望하야鎭南浦開港三十週年紀念으로明年度에此를平南兩地에大規模로開催하기로決議한後最終議長으로부터南浦가나흔成功者加藤某氏로當地公共事業에쓰달나는金二萬五千圓의寄附가잇섯다는發表外에電料問題無盡會社問題等에關하야長時間討議가잇슨後同六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鎭南浦)

臨津江測量着手

總督府土木課로부터技手鄭在英氏外職員工夫等數十名이出張하야九十八個日豫定으로臨津江一帶를測量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其諸般準備가整頓되엿슴으로昨二十九日부터第一着手로汶山江부터測量을始作하엿더라(汶山)

●江景靑年臨總 江景靑年會에서는五月二十九日江景體町勞組二階上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會員整理任員改選會館問題等을決議하얏다는데任員은左와如하다고

△任員 會長朴祥煥 副會長未定 評議長鄭沂昱 庶務部其他各部長六人(江景)

◇蠅驅除宣傳 夏期의各種傳染病은大槪(파리)가仲介物이됨으로坡州警察署에서는傳染病豫防의一策으로파리驅除宣傳비라數千枚를全市街에排布하고驅除에努力한사람中等級을抽籤한後左와如히賞金을授與한다고 一等五圓二等四圓三等三圓四等二圓五等一圓式(汶山)

紀念貯金獎勵

今番地方金融組合規則發布日인五月三十日을記念하기爲하야平南江西金融組合에서는五月三十日부터六月六日外지同組合의精神普及과勤儉貯蓄의獎勵를宣傳코저宣傳비라를配付하고据置及不動貯金者에게五圓마다福運券一枚를贈呈하며貯蓄預金者에게는贈呈한다는데同組合員一同은大大的으로記念貯金을勸誘活動한다더라(江西)

冒雨活躍한 馬山市民運動

大盛況으로閉幕

馬山靑年聯合會主催인第二回馬山市民大運動會는其間天候의關係로數三次나延期되야五月二十七日에는期於히斷行하기로하엿던바當日은비가오락가락하든날임에도不拘하고一般觀衆은雨傘洋傘으로一天을遮하야別有天地를일윗스며堅忍不拔의精神과意氣衝天의氣象으로勇敢스럽게뛰노는選手들은實로男子다운靑年이라고男女를無論하고歡賀不已하는中數呼의聲은一層元氣를도앗스며意味깁흔運動이되엿다科目의順序가마침을따라午後五時三十分頃에閉會하엿다는데後援及同情은如左하다더라

△後援 마라손優勝 閔尙基君 自轉車優勝 姜熹守君 千米突優勝 金炯杰君

△同情人士 一金十五圓馬山穀物組合 一金十圓馬山產興貯蓄組合李佑植共選傅李九 一金七圓李柏滿 一金五圓馬山東株式會社王麒煥李鍾模黃用周馬山信行貯蓄組合申永守金炯壽朴聖則馬山海山旅館彭漢辰韓正愚 一金四圓倉庫商會社彭德善 一金三圓金性範崔瑾朝李鍾雨徐光遠曹京鎬明道爽尹致斗克山洋靴店朴明克金漢榮金泰鎬翠 一金二圓高相穆李起炫朴鍾動薛永喜李澤龍金斗彥金斗內李鉉濟李基一徐順正李琪浩康仲燮漢陽館孫文鼓三角商店徐相源徐內武羅寅漢李相潤洪鍾麒南環祐金九枚白一書店明鏡洪金炯徹 金陽文李鍾誠金潤香金玉鉉 一金一圓李應九朴順明千鶴植張道學安長守金正太崔成默金昌五金在鍾東店洋服店金鍾哲羅希善金尙基朴成宇金令同金元福金澈 … 洋服店 … 一金五十錢金性老(馬山)

脚戲大運動會

時日 六月十四、五兩日間午前十時부터(雨天順延)

場所 [illegible]

賞品 一等大牛一頭 二等中牛一頭 三等廣木一疋

主催 長湍消防組

後援 朝鮮日報長湍支局

脚戲、庭球 旅行、見學

◇金谷公普見學 楊州郡金谷公立普通學校에서는五月二十六日三日豫定으로各擔任敎員이五六學年生徒三百餘名을引率하고京城博覽會와其他各處를見學키爲하야出發하엿다고(楊州)

◇安州脚戲 年中佳節인端午日을利用하야例年과如히安州有志發起로陰五月五、六、七、三日間安州大王山下大廣場에서脚戲大會를開하고저目下諸般準備가着着進行中이라하며各地方農村力士들은此機에多數히來參하야勝負를較하는同時田疇에苦勞하던心身을一日이라도愉快히보내기를바란다고(安州)

◇楊市脚戲 平北龍川郡楊市에서는例年에依하야陰五月五日부터七日外지三日間脚戲大會를開催하리라는데幹部會에서는一般의만흔同情이잇기를바란다고(楊市)

◇江西靑年校見學 平南江西郡靑年學校에서는去二十七日同校五六學年生徒二十二名은敎員張鎭祐氏引率下에京城으로出發하야博覽會와其他主要名所를見學하고去三十日無事歸校하얏다고(江西)

◇好壽敎女高見學 開城私立好壽敦女高普學校二十八名은同校校監金澄柱氏外三職員의引率下에二十九日朝鎭南浦에往하야本社支局의案內로市內諸名所를見學하고同十時四十分南浦發列車로歸校하얏다고(鎭南浦)

◇幼年主校運動 黃海道安岳郡大香面生芹里三光基督靑年會主催로去二十八日當地德成學校運動場에서幼年主日學校運動會를開催하고四十餘種競技科目을無事히進行하엿는데當日參加團體는生芹龍浦觀海花川楓谷谷幼年主日學校라더라(長淵)

◇光進校生遠足 黃海道長淵光進學校三四學年生一同은去二十五日學監元春道敎員崔殷陽兩氏引率下에九月山으로遠足하얏다가二十六日無事歸校하엿다고(長淵)

◇吳醫師가주신눈(目) 忠淸南道禮山郡禮山面禮山里海東醫院은醫師吳道泳氏經營으로開業한지不過一個月의新設醫院으로氏의親切叮嚀함은一般의稱頌이籍籍한同時患者가每日逐至하야人山人海를成하게되며貧한者와無依한患者다도直効를見한다하며一般貧者에게는無料施療한다는데其一例를擧하면牙山郡道高面舖田里朴承淳(七二)은五年前에右眼이廢盲되여何物도보지못하엿든바家勢가貧寒하야一分의藥代를辦出할道理가無하야于今五年間이나治療치못하엿던바日前同醫院에서無料手術을受하야完治된바前記患者朴承淳은四方에다니며吳醫師가주신눈(目)이라고자랑한다고(禮山)

◇寸鐵◇

【原州】 邑內南門街里某家에서는每夜十二時頃이면風波가나서隣家사람이安眠을不得한다고夜半이면차호는것을보면公開는못할모양

【春川】 次次春宮博覽會期가臨迫하니外例의奸商輩들이벌서活動하는모양이다 昨年에는數十名이咸興收入을보매이더니今年에는또몃名이나될는지?

【義州】 去二十日邑內公普校三年擔任日女敎員某는遺失한學生의授業料를찾노라고二時間式을虛費하엿스나結局못찾고말엇다나 些少한事件에敎育者가何其多也

▲正誤 昨日本報(第二千五十號)第四面記事綠肥採取紛爭이란題下의『面民의處事不公』은『面長의處事不公』으로正誤함

社告

一、支局의名稱 載寧支局

一、支局의位置 載寧邑內菊花里

一、支局長氏名 金龍璿

右와如히載寧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僉位는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白

一、支局의名稱 鐵原支局

一、支局의位置 鐵原邑內官田里八八

一、支局長氏名 尹禮重

右와如히鐵原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僉位는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記者金秉世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소서 朝鮮日報鏡城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愛讀諸位의便宜와業務를擴張키爲하야左와如히電話를架設하고擬務中이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소서 電話二一九番(振替京城一四一六五番) 朝鮮日報寧邊支局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May. 31st, 1926.

SIX SECONDS FROM ETERNITY!

IV

Then the experimenters did what Dr. Burka describes as a "six-second fuse." Six seconds elapse between the time the cartridge is dropped from the airplane and the time of the explosion.

In the experiment which they conducted at Rochester, they set off a fiftypound charge high above the city at 7:45 o'clock at night, and made an excellent view of virtually the entire city in spite of the mist and smoke.

Thus Dr. Burka tells the story:

"We loaded our cameras in the Martin bomber, placed the fifty-pound cartridge in proper position, and when everything was right for the experiment we took off. Goddard 'gave 'er the gun' and we climbed and soared until directly above the center of Rochester.

"The cartridge was dropped over. Six seconds later there was a terrific detonation. It jarred our heavy ship, and the roar of the two Liberty motors on the plane was completely submerged. The camera operated according to schedule. and after landing we developed the plate and had a most excellent picture of the city.

"Although it was a heavy explosion, there was no spectacular flash, as one might suppose.

英文欄

死線을버서나서 (四)

慶南地方의洪水로 各地의交通杜絶
동래에서는사상자발생 그러나물은감수된다고

석간에긔보한바와가티 경남(慶南)각디에는홍수로 하천(河川)이 범람(汎濫)하야 동래읍(東萊邑)과동래온천(溫泉)간이 홍수로 뎐차(電車)가 통하지못하엿스나 삼십일부터 개통이되엿스며 밀양읍내와 밀양역간과 진주(晉州) 합천(陜川)간 창원(昌原) 하동(河東)간 마산(馬山)통영(統營)간은전부 교통이두절되엿스며 동래에서는 집한채가문허저 사망자한명과 부상자한명을 내이엿는데 목하각디의강물은 감수중 이더라(경무국착뎐)

시앗에게맛고 告訴를提起
덕실의몸으로 첩에게매맛고

광주(光州)시내에서는지난이십팔일오전두시음하야 만뢰가구적한데죽여라 살려라하며 적막한밤공긔를 깨트리는 시앗싸홈의 한막이시작되야결국 경찰서에 고소(告訴)까지 하엿다한다 사실을 들은즉 광주조병섭(曹秉燮)이라는사람은본처차씨(車氏)는향사리(鄕社里)에 살리고『남원네』라는첩은 작년삼월분에맛나부동뎡(不動町)에서 술장사를 하야오든바 조병섭이는 남원네에게 얼마나 홀렷는지본실은 돌보지아니하고 한푼만생겨도 첩의집 살림만하든중 금번에도 본처소생인딸재(宋者)(二)라는딸을 릉주(綾州)사는김래윤(金萊允)이라는사람과 결혼(結婚)하기로하고 혼수비(婚需)로 금이백원을바든후혼수에는한푼도 쓰지안코 전부를남원네의술밋천으로 바친후 결혼할날자가 륙월일일인데 한가지의 준비가업시 엇지할줄을 몰으든 차씨는모든창피를불고하고남원네의집을차자가서남편되는조씨를차진즉 케잡듸하고남원네가달려들며 차씨의머리채를잡고물고 뜨리여현장에서 긔절한바이것을 보고 남원네의아들과 며누리는 그길로 차씨의본가에 달려가서 볼일간 셔집갈규수 맘재는끌어내여무수히란타한사실이라는데 피해자는 삼주일간 치료를요한다는 진단서를첨부하야 고소를 뎨긔하엿다더라(광주)

春川邑에大火災
全半燒八戶、損害五萬圓
삼십일오후여섯시십분경 읍내일인의상뎜에서발화

삼십일 오후여섯시십분경에 춘천읍(春川邑)중앙디에잇는근관상뎜(根貫商店)에서 불이 일어나 삼시간에 동상뎜과밋그외에 전소다섯채와 반소두채를 내이고 동여덜시사십분경에 진화되엿는데 원인은 실화이며손해액은약오만원가량이라더라

金虎門事件 現場臨檢
藤村豫審判事가 삼십일일오후에

금호문사건(金虎門事件)의피고 송학선(宋學先)(二0)을 예심(豫審)에서 취됴하고잇는 경성디방법원의 등촌예심판사(藤村豫審判事)는 삼십일일 오후네시경에 서긔한명과 종로경찰서 형사한명을다리고 사건돌발되든 금호문부근의 현장(現場)을 림검하엿다더라

『思想運動』臨時號

동경에잇는 조선인 사상단톄일월회(一月會)의 긔관잡지사상운동(思想運動)의 오월호는『맑스、엥겔쓰문헌발췌(文獻拔萃)의일편』이라는론문으로 압수를 당한후 그긔사를삭케하고 수일전에 림시호를 발행하엿다더라

開城商街에大火
상뎜과주택칠호를전소 損害額은調査中

삼십일 오후두시삼십분경에 개성남본뎡(開城南本町)사백사십칠번디 박규환(朴奎煥)포목뎜에서 돌연히불이일어나 때마츰 맹렬히부는 바람의긔세를 어더가지고 붓길은사방으로 퍼저서 삼시간에 동사백 사십팔번디 김원경(金元卿)잡화상과 동사백사십칠번디안주호(安周鎬)의 주택이동(二棟)과 동번디의 김준영(金駿永)도긔뎜과 동사백사십륙번디서상순(徐相淳)의 뎐당포와 동사백사십오번디 신영화(申榮華)의 숫뎜(炭商)등 합일곱채를 태우고 동네시십오분경에야 겨우 진화되엿다는데 발화원인은 전긔박규환상뎜 온돌로부터 출화된것 이라하며 손해뎡도에 대하야는 방금됴사중이라더라(개성)

通度寺住持選擧

경남량산(梁山)통도사(通度寺)에서는 주지(住持)로인하야 오륙년전부터 이문뎨가 매우격렬하여 전주지 김구하(金九河)씨는견되다못하야사직(辭職)을단행하고 그뒤로 김와운(金臥雲)씨가사무취급(事務取扱)으로잇다가 지난십오일경에 겨우주지를 선거케되야 송설우(宋雪雨)씨가 당선되얏는데 씨는방금금강산(金剛山)모사(某寺)에잇다는바 통도사에서는 씨를영접차로모씨를 금강산까지 파견하엿다하며 일방에서는 당국에인가운동을하는중이라더라(언양)

因山叅拜도禁止
상부의명령을구실로 인산참배단도또뎡지

긔보=본사 진남포지국(鎭南浦支局)주최의인산참배단(因山參拜團)은그간에 벌서참가단원이 칠십여명의 다수에 달하엿슬뿐아니라 경성요로에교섭하야 려관(旅館)과 당일참배의 절차까지 확뎡되엿섯는데 이십팔일 정오에 진남포경찰서 고등계로부터주최자에게대하야참배단의려뎡을 변경하야 인산(因山)전날(구일)까지에 도라오게 하든지『구일까지도라오지못하겟거든 인산참배를 뎡지하여주기를』바란다는 간담(懇談)식의금지(禁止)가잇섯슴으로 주최자측에서는 일반단원을차저 그뜻을 면담하엿스나인산참배단으로서인산전날까지에 다녀도라오도록 하라함은 너무도 단원들을 어리석게보고하는 가상아롬다운 동긔이라고 하야 단원들은 분원한 긔분이충일한 중에서 섭섭히 인산참배를뎡지하고말엇더라(진남포)

警務局의方針
白井主任談

별항보도한바 인산참배단의 상경을 금지한데대하야 백정(白井)진남포경찰서 고등계주임은 『이번일은 더방면뎨가아니라 경무국으로부터 전조선 각경찰서에 지령(指令)을발하야 금지케하는바인즉 유감이지만 금지하는외에는 별도리가 업슬것이며 단톄원뿐아니라 인산당일되는 혼잡(混雜)을미리방지하는방법으로서 개인(個人)의 상경(上京)까지라도금지할방침이라고』 하더라(진남포)

『點燈二割減下는 너무過大한要求』
금번에동경으로부터입경한 ◇白石京電重役談

경성뎐긔회사(京城電氣會社)중역백석중태랑(白石重太郞)씨는 평양뎐긔회사장(平壤電氣會社長) 궁천오랑삼랑(宮川五郞三郞)부산와사뎐긔회사장(釜山瓦電會社長)향퇴원태랑(香椎源太郞)등뎐긔업계의유력자 세사람이 이십구일에 돌연히 입경하야 회합한바잇슴으로 뎐긔문뎨로 오래동안문뎨를거듭하야오든 이때에 여러가지억측이만 잇서 뎐긔협회(電氣協會)에서 대책의 근본방침을 협의하는데를 최후로 결뎡하기위하야당국의량해를구하고자조선에온것이라는등유근무근의풍설이뎐파된다는데 이에대하야 문뎨의백석씨는말하되 『뎐긔문뎨로온것은아니외다 오래동안 조선에올긔회가 업섯슴으로 풍화일란한 시긔를타서 놀러온것인데 아직도라갈날자도 결뎡하지안엇스나 오래잇지는 안켓습니다 경성뎐긔료금 감하문뎨는팔월일일에 감하할것을 발표하기로 이미성명한이상 물론 결행될터인데 공업동력(工業動力)삼할 오분 뎜등(點燈)이할의 과대한요구에 대하야는 회사의 내용을 조사하야 보면될수잇슬는지될수업슬는지 즉시알수잇슬것이며 금강뎐긔(金剛電氣)와 본사의합병문뎨가 잇다던 하엿든 모양이나 그것은회사의목뎍이 서로갓지안흐면 합병할수가업는것인고로실현은도뎌히곤란한것이외다』 하더라

訪日丁抹機 大阪到着
삼십일일정오에

일본을 방문하는도중에잇든뎐막(丁抹)비행긔는삼십일일뎡오후령시칠분경에무사히대판련병장에도착하엿다더라(대판뎐보)

正義府의武器問題
購入後資金調達이問題
긔관총과장총등을삿스나 그갑을치르지못하엿다고

정의부군사부위원 김인순(正義府軍事部委員金仁順)은 오월상순에 동중텰도(東中鐵道)해림(海林)에서 곽송령(郭松齡)의부하 당경현(唐景賢)과 밀회한후 다수한 긔관총(機關銃)과장총탄환(長銃彈丸)등을 팔천오백원에 매입하기로 밀약하고현품은 통화현백위촌(通化縣白威村)까지 운반하여 노앗스나 자금조달이 뜻과갓지못하야 오월중순에 박영(朴泳)을 대장으로 한일대를 간도무산(間島茂山)디방으로파견하고 이외에장구(張九)를대장으로한일대도압록강(鴨綠江) 대안으로 파견하야 자금조달을계획중 이라더라

禮山에喜雨
물싸홈도그쳣다

충남 례산(禮山)디방에는 춘한(春旱)이 심하야 벌서부터물싸홈(引水戰)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며 한참소동이되더니 지난이십칠일 일몬아츰부터 비가 내리기시작하야 이십팔일오전까지 계속하엿슴으로 일반은 대단히 깃버하는중이라더라(례산)

光州

전남광주(全南光州)에근래에드문큰비가왓다함은 긔보하엿스나 이로말미암아 당디광주천(光州川)상류금계리(上流錦溪里)일대에서는 리민(里民)의 부역으로 간신히한제방(堤防)이 문허저서 인가(人家)가문허지는동시에물이넘처 심히위험(危險)하게되얏슴으로 리민일반은 대공황(大恐慌)중에 대표를 선정하야 면당국(面當局)에구두진정(口頭陳情)케하고 하회를보와 도군(道郡)에 진정할예뎡이라더라

京都도水亂

지난이십구일밤이래쏘다지는비로연하야일본경도(京都)부하일대의 각하천은불징오척의증수를이루엇스며 삼십일 오전여덜시반에는부하상락군도전촌(府下相樂郡稻田村)부근에 목진천(木津川)이범람하야 물결에밀리는모래는관서선(關西線)을덥허렬차가불통되야 목하선로공부(線路工夫)와당디청년단등이 복구공사에노력하는중이라더라

廣島豪雨

일본광도현(廣島縣)일대에는 수일내나리는폭우로인하야굴(隧道)이칠개소나파괴되엿스며 각텰도와 도로(道路)교량(橋梁)등도류실 혹은파괴하야교통은전부불통상태에잇스며 부근촌락에는 흙덥이가무너저 인축의사상이 다수이더라(광도)

仲媒한다고
・남의돈만먹은자

시내길야뎡(吉野町)일뎡목칠백팔십번디 신재현(申在賢)은 상당한 안해를구하여주마고 이긔미를 알은시외고양군 룡강면토정리(高陽郡龍江面土亭里)일백이십오번디 리길용(李吉用)은 중매가되겟다는 거짓말을 한후 시내룡산암근뎡(龍山岩根町) 삼십일번디함건익(咸建益)의차녀설순(雪順)을소개하겟다고 청탁하야 이월이십사일에 금지환(金指環)과 혼수비로 현금삼십원을가저간후 지금것 소식이업슴으로 신재현은 사긔임을알고 리길용을사긔죄로고소하엿다더라(고양)

『지부쓰』에걸린 高女生徒三十名
일본이세긔녀학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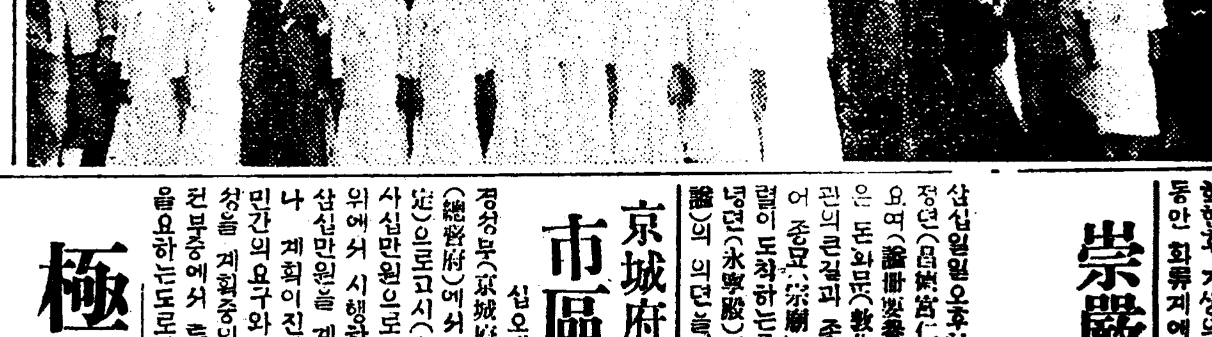
일본이세긔(伊勢崎)고등녀학교(高等女學校)사학년생도중에서『지부쓰』환자가발생하야지난삼십일일까지에 학생삼십명과 교원(敎員)한명의 새환자를내이엿는데 전염계통은 아직알수업다더라(동경뎐보)

脫營兵은 軍法會議에

긔보=지난이십륙일평양칠십칠련대(七十七聯隊)의이등졸관구진부(關口辰夫)(二二)가탈영코저녀자로변장한후 다라나다가잡혓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전긔 관구진부는 지난이십칠일 오전령시이십칠분발부산행렬차로 룡산사령관 군법회의에 부치고자 룡산으로압송하엿다더라

脫營한原因은 신톄의허약함과 상관의압박으로

전긔 관구진부는 자긔의탈영한 원인에대하야 말하되 자긔는 평소몸이약한데다가 도뎌히 병역을 감당하지못할 것임에 더러 가려국민의의무로 입영한자도 다소디위가 넘음을자세하야



◇=장성공립보통학교생도일동삼십일본사견학=◇

断指의結果
맥박이잠간뗏은

군산부장재동(群山府藏財洞)에 거주하는김의숙(金義淑)씨는 우연한병으로 신음하던중 지난 삼십일오후일곱시경에 이르러 위독하야 거의 절명에 이르게 됨으로 그의장녀되는 김봉례(金鳳禮)는 왼손가락을 물씨어서 선혈로써 그부친의입에흘려너흐매 약삼십분간 맥박이 평온하여지고 다시 생기가 나서 깨여낫다는데 일반은 그의효성을 칭찬한다더라(군산)

男便冷待로 양재물을먹어
생명이위독하다

광주(光州)서남리(瑞南里)사는조귀연(趙貴然)이라는이십일세의녀자는 지난이십칠일 오후팔시경에 양재물을먹고 피를토하며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즉시중앙의원(中央醫院)에가서 응급치료를 밧고 다시제중원(濟衆院)에 입원치료하는중이나 회생할가망이 업다는데 그원인을들은즉 귀연이는 본래 경남진주(晉州) 출생으로 어려서보통학교 사년급까지 다니다가 중도에퇴학한후 기생의몸이되야 오륙년동안 화류계에종사하다가 자룡으로부터 삼년전에 충남사람 윤완수(尹完洙)와 서로맛나 우연히 돈정이 깁허가든중 귀연의부모는 배씨와살지 못하도록하야 여러번풍파가 일어낫는데 그러할수록 두사람은 더욱구든약속을맺고 슬어편 가슴을서로 위로하며 그날그날을지내든중 지난삼월분에 배씨가 광주남신 자동차부(南信自動車部)로 전근하게되매 가려와서 젊은머리가 파뿌리가되도록 살고자하든것이 뜻과갓지아니하야 배씨의 마음과행동이 변한듯함으로 여러차례말다툼도 하엿섯는데 지난이십칠일밤에도 배씨의 행색이 수상함으로 말리엇든바 총총히나가는 뿌리치고 나감으로 그와가티양재물을먹은것이라더라(광주)

崇嚴한上諡儀典
종묘에청시를거행한후 王殿下親臨하사改銘旌도擧行

삼십일일오후한시에 창덕궁인정뎐(昌德宮仁政殿)을떠나신청시책보요여(謚冊寶腰轝)의 장엄한 행렬은 돈화문(敦化門)을나서서 동관의큰길과 종로삼뎡목을 거처서 종묘(宗廟)에이르럿는데 행렬이 도착하는즉시로 종묘와 영녕뎐(永寧殿)에 승엄한청시(請諡)의 의뎐을거행하고약삼십분이지난후 다시행렬은 창덕궁으로도라와서 인정뎐에드럿다가 오후네시에 빈뎐(殯殿)인 선정뎐(宣政殿)에서 왕뎐하를 비롯하야 긔타의제원이 시립하야상시(上諡)의의식을거행하얏는바 이의식이 뭇난후에는 뒤를이어 개명정(改銘旌)을 거행하엿다더라

京城府의 市區改正
십오개년계획으로

경성부(京城府)에서는 총독부(總督府)에서 시구개정(市區改正)으로고시(告示)한것을 년범위에서시행하기로되여 금년은 삼십만원을 계상(計上)하엿스나 계획이진행되지 안음으로 민간의요구와 실제의 필요상속청을 계획중이며 그외에나머지 전부중에서 특히필요하고 긴급을요하는도로를조직뎍으로또한 계속뎍사업으로서륙월경에마칠터인데 그때까지에는 이것을총독부에 제출하기로 되엿다 이에대하야 암성토목과장(岩城土木課長)은말하되 안(案)의내용은 현재 작성중임으로구톄뎍으로 발표할수는 업스나총예산일천삼백만원을 십오년계획으로 래년도부터 착수할터인데 그중삼분지일인 사백만원을 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삼분지이인 팔백만원을국고(國庫)로부터보조를 바드려고 생각하는바 이것만되면 대톄로 경성의시구개정과 도로공사는 일단락을이룰것이라 하더라

極東赤化宣傳 臨時總會開催
재만각단톄에서는대표파견 정의부에서도대표세명출석

지난 오월중순부터 계획중이던 극동적화선전림시총회(極東赤化宣傳臨時總會)는 그준비가착착진행되여 근근 개최하리라는데 재만(在滿)각단톄로부터는 두명의 대표자로 출석케한다는바 정의부(正義府)에서는 리탁(李鐸)김호익(金虎翼) 리청텬(李靑天)등삼대표를파견출석케하엿다더라

延專副校長 白博士歸國
가뎡의사정으로 일년동안조선을리별

시외 연희면(延禧面)에잇는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부교장『백커』박사는 오는십일일 아츰차로 본국인미국을향하야 출발한다는데 박사는 현금사십세의장년으로 일찍구백삼년에조선에건너와 평양숭실 학교에서 일천구백십사년 삼월경까지교편을잡고 잇다가 그해사월에 현금연희전문학교가 창설될때에 그학교교수로 피임되야현금종로 중앙긔독교 청년회아래층에서 약일년동안이나 교수하다가 그후에 장로교(長老敎)와감리교(監理敎)가련합하야연희전문학교를 경영하게 되매 뎡동에잇는 배재학교로도 자리를밧구게되야 또한그곳에서 젓박사리와가튼 연희전문학교에서 열성을 다하다가 연희전문학교가

鄭鍾碩氏美擧

하동군적량면고절리(河東郡赤良面高節里)에사는정종석(鄭鍾碩)씨는 자긔동리일백사십여호중 요호십호가량을 제한외에 일백삼십여호빈농의 춘긔호세 근이백원이나되는것을 차긔 단독으로 부담하얏슴으로일반동민은치사하는의미로 방금 석비까지 세우라고준비하는중이라고(하동)

土窟에盜賊놈
물욕이난것이아니라 청욕의관계인듯하다

평북룡천군양하면립암동보걸리(平北龍川郡楊下面立岩洞補結里)에서사는장상산(張尙山)의집에 삼교천언안(三橋川沿岸)토굴에서 아니오시는 고진면채석장(古津面採石場)에가서업고 안해린방우

滿朔된孕婦 줄임에쏫겨窃盜
벼주이목이번다한곳에서 조쌀닷되를훔치다가발각

의주군의주면서부동일백팔십오번디(義州郡義州面西部洞一八五番地)김봉현(金奉鉉)의처강복녀(姜福女)는방년의 아리따운미인으로서 지난이십팔일백주에 동면동부동 김보련(同面東部洞金普?)의집고간에잇는 조쌀(粟米)닷되(五升)가량을절취하엿다는사실로방금당디경찰서에 인치취됴중 이라는데 이제그사실의내용을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강복녀는 남편김봉현과가티 밤낫을 불구하고 품팔이를하야 그날그날의 생명을이어오든바 근일에와서 그의남편은 품팔이할곳도 업슬뿐아니라 자긔도아이를배인지 만삭(滿朔)이된중에 엇지할수 업시 밥먹칠동안을굼게되야주림에 못이기여 백주에 사람의이목이번다한곳에서 얼마안되는 쌀을절취한것이라더라(의주)

學生의册褓를 江中에投擲
대단치아니한일에 폭행을한일부인

전북김뎨군 부량면룡성리(全北金堤郡扶梁面龍成里)사는 서정근(徐正根)이란생도는동읍보통학교 뎨사학년에 통학한다는데 지난이십륙일 도디가는길에동면포교리(浦橋里)강가에잇는배를타고 노든중 그곳에거주하는 서촌(西村)이란 일본인은 그배를 자긔배라고 전부터고기를 잡으라고 던저노핫슴으로 그책보를 폭행을하엿다는데 이광경을본일반은 어린생도의 책보를그와가티 물에던지는것은 아모리생각하야도그자가아니면못할일이라고분개한다더라(김뎨)

十四歲少女를 誘引하야轉賣한者
서대문서에전부잡혓다

본적을 수원군동탄면명산리(水原郡東灘面鳴山里) 일백삼십삼번디에두고 현금시내소격동(昭格洞) 일백십륙번디에사는장상춘(張相春)(四0)과 그의처 리씨(李氏)라는 녀자는 얼마전에 자긔고향에서 송아기(宋阿只)라는 계집아이가생활이 곤난하야 드난사리라도 하겟다는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시내송월동(松月洞)구십구번디모씨의집에잇는데본래부터송아기와 면분이잇는것을 긔화로역이어오월초오일에마츰전긔송아기가 송월동뒤산으로 나물을캐러갓슴을 이것을 안장상춘과 그의처 리씨는산으로 쫏처가서 꾀여가지고 상당한곳에 시집을보내준다고 달내어 소격동자긔집에 사흘이나두엇다가 인천(仁川)출생으로주소와직업이업시 돌아다니는 오정녀(吳姓女)를 식이어 오월상순경에 중국산동(中國山東)출생으로 현금시내서소문뎡(西小門町)에사는 중국인 방진구(邦鎭九)라는자에게현금팔십오원에 팔아버렷는데 방진구는 가튼 중국인 뎐문영(田文榮)이라는자를 식이어 이십구일밤차로 인천(仁川)으로 보내여 중국인의 융극선(戎克船)으로 산동(山東)에 보내여 팔아먹고자 하든것을 소관서대문서의 강(姜)순사가이를탐문하고이십구일 오후다섯시경에 그자들을 체포하야 현금동서에서 엄중히 취됴하는중이라는바 취됴를 딸아여죄가 만히발견되리라하며 동서에서는 근래에이런자들이 만흠을딸라 혹은대규모의 소녀유인단이 잇지나안은가하야 일층더 엄중히취됴한다더라

술두잔이사자밥
술두잔때문에싸홈이되야 발길로차서필경은죽엿다
犯人은逮捕取調中

지난이십륙일오후네시경에평남평원군 순안면남창리음식뎜(平原郡順安面南昌里飮食店) 리달현(李達鉉)의집에서는한참동안이나 이놈저놈 죽일놈살릴놈하야 야단법석이나더니 한사람은 그자리에거꾸러저서 그길로 죽은사실이 잇섯는데 이제그내용을알아보건대그날은마츰순안장날이야서 전긔 리달현의 집에서술추렴하고잇든 평원군순안면 남창리백번디림긔찬(林基贊)이라는사람이가튼 술먹든 평원군 량화면 신성리(平原郡兩花面新成里)이백이십오번디 김련보(金?寶)라는 사람을 발로복부(腹部)를 함부로차서 그리되엿다는데 이와가티 차게 된원인은 전긔피해자 김련보가 가해자인 림긔찬의 주석에 들어

서(林方手腕)가깁히잠이들엇슨중에 어떤장한한명이 방우선의집에 침입하야 무엇을찻는중에 방우선이 놀래여 잠을깨여서 도적이야 소리를지르며 그자와 조용히 어다리를매고 뜨러지면서그자는 아모것도 가지지못하고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그범인이 근처김약산(金若山)이라는혐의로 주재소에고발하야 즉시 데포하얏는데 전긔 방우선은 정신병자가 아니오 전긔범인이 김약산이가 아니오 누구인지 알수업다하야 무슨생각이 잇는지 한것을보면 물건을 도적하려온 것이아니오 청욕관계로 그와가티 행한자인듯하다더라(양시)

리달현의 김련보는

가서 술두잔을가 먹은것이말썽이되야 림긔찬은 김련보에게술을사내이라고 강박하얏스나 김련보는 그의말에응치아니하얏슴이라는데 그의말에 이와가튼 긔급수당을 밧는동시에 진찰을바든결과 순안병원(順安病院)으로 업고가서 의사에게 진찰을바든결과 부검단(腹部切斷)된것이판명되야 살길가망이업다함으로 즉시 그의가족에게 이사실을 알리어 가마에태워서 자긔집으로가든 도중에서 절명되엿는데 경관은 즉시가해자 림긔찬을 데포하는동시에 평원경찰서경부(平原警察部)의검시를 바덧스며 범인은 이십구일에 평원경찰서로압송되야 방금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이라더라(평원)

一胎에三女
네사람이다건강

경북 영일군 청하면미남리(慶北迎日郡淸河面美南里)정경술(鄭景述)의 처리남이(李南伊)는지난이십륙일에 아홉달재되는생월에 삼녀를 나헛다는데 산모와 아이들은 다건강 하나가세가 극빈하야 장차 보육할도리가업서 그의 아버지는 차저간 긔자를향하야심히걱정하더라(청하)

三名이作黨하야 靑年을毆打致死
가해자한명만은데포

충남서천군서면 원두리(忠南舒川郡西面元頭里) 김녹순(金祿順)과한동리에사는 유이보(俞二甫)와 가튼동리사는 최완복(崔完福) 세사람은 석군작당으로 사람한명을 란타하야 죽이고 두명은도주하엿슴으로 김녹순한명만을잡혀서 추고 서천경찰서(舒川警察署)도경부손에서 엄중한취됴를밧는중 이라는데 자세한원인을 들은즉 전긔김복순은 원래동리에서 주식뎜(酒食店)을 경영하는데 전긔김복순의처 정춘홍(鄭春紅)방년이십삼세된 미인을다리고 영업을하든바 지난오월이십일날에 가튼 동리에사는 경산옥(慶山玉)방년이십오세된청년이 전긔 김복순의안해 정춘홍과가티 안저잇는것을 동긔로삼아 그와가티 석군작당하야 전긔경산옥이를 죽엿다는데 그녀자와 경산옥이와는 그전부터 엇더한관계가 잇섯는지도모르겟다더라(서천)

팔려가는娼妓 放火犯으로取調
팔려가는것이실혀서 복수뎍으로불을노하

지난이십사일 밤열한시반경에 평양부 아텽리(衙廳里)팔십번디 류병선(劉秉善)의 집에는 원인미상한 소화(小火)가잇서일시 온동리가 소란하엿던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그원인을엄밀조사중이든바 마츰내 그집에 ……

하관을만나하기가 여간아니란 고말하더라(평양)

法廷에서痛哭
강도범으로 징역언도를밧고

강원도금강산 신계사(江原道金剛山神溪寺)에침입한 강도두명은 지난이십구일 오전열시에원산지령(元山支廳)에서 손판사(孫判事)로부터 황영옥(黃永玉)은징역오년 박승도(朴承道)는징역삼년에관결언도를 하엿는데 전긔박승도는 량심가책을바덧는지 언도가그치자 대성통곡을 하엿다더라(원산)

路上一幕劇
靑春夫婦의 남편이실타고 리혼을요구해

경북문경군 동로면지성시장(慶北聞慶郡東魯面赤城市場)에서 이십칠일낫에 청춘남녀두사람이 가자거니못가겟다거니하야일경은젊은남자가젊은녀자의머리채를 붓잡고 왼장터를도라다니게되자 이를구경코자오고가는행인수십명이모혀엇는데 그남자는 례천군지보면마산리 리정덕(醴泉郡知保面馬山里李正德)이오 그녀자는 문경군동로면간송리 주성녀(朱姓女)의삼녀로 부모의승락으로 결혼하야 금일까지 화락하게 살어오다가 금년삼월경에 그녀자가 친뎡에가서 수삼삭을두고 오라고하여도 오지아니함으로 알어본즉 례천군유천면 중평리도덕산(醴泉郡柳川面中坪里道德山)의집에가서잇슴으로 그남편이차자가서 집으로도라가자고 한즉 그녀자는 동로면주재소에 가서 나는저사람과 아니살겟스니 리혼하야달라고온것이라더라(상주)

慶東線開通

수일전경북(慶北)디방의호우로인하야두절되엿던 경동선(慶東線)산악(山岳)경주(慶州)간선로복구공사가착착진행되여 삼십일부터개통되엿다고

江景에棄兒屍

지난이십구일 오후한시음하야 충남논산군강경면남뎡(江景面南町)제방너머 보(洑)물가에는 나흔지 며칠되지안흔 사내아이를흰 옷으로싸서 물에던진것을 발견하엿는데 필경 어떠한 부정한녀자의 소위인듯하다고(강경)

滄海航行中에 老翁이投身自殺
됴사결과생활난으로판명

이십구일 오후세시경에인천(仁川)영종도(永宗島)사이에 통행하는뎨일세환(第一稅丸)이오후한시이십분에 영종도를 출발하야 오후두시삼십분경에 인천월미도(仁川月尾島)돌뎨(突堤)부근을향하고 돌어올즈음에 나히칠십이나된 로인(姓名未詳)한명이 아모힘업시밧갓흐로나가서얼마동안 푸른물빗을 나려다보고한숨을 길게쉬이더니 물속에몸을던저 참혹히죽엇는데 마츰동긔선내에탓든 승객중한명이 요란하게떠드러지는 소리를질러 진행하든배를 정지시키고 시톄를수색한결과 그의 모습은신장이 오척삼촌이오 모발이하야케시고 수염도잇스며 머리뒤가나왓고 광목바지저고리 두루막이를입고 갓을쓰고고무신을 신엇스며 몸에는동전 ……

河豚먹고橫死
술안주로먹고서

오월이십삼일경주군수진면석계동(慶州郡水?面石溪洞)『김선모』두사람은 한집가에는 나히사십가량 되어보히는 남자의 시톄가발견되야 일시는 대소동을 일으엇다는데 이제그사실을 됴사한바에 의하면 전긔시톄는 당디석계동 사람장득선(張得善)이란 사람으로 당일아츰에 그곳영덕수막에서 친구와더부러 술을먹을 때에 복어(河豚)를 다섯개나먹어 중독되야그와가티 길가에서죽은 것이라더라

印章僞造犯 검사국에압송

긔보=황해도은률군이도면가당리(黃海道殷栗郡二道面加唐里)에 본적을두고 박룡범(朴龍範)이란자와 동군 사는 김치복(金致福)이 안악면동석리(安岳面東石里)에사는한영교(韓永敎)의 아들도두(韓道斗)가사망한것을긔화로 인장을위조하고 여러가지 부정행위를하엿다가 안악경찰서에 발각되야 취조를받는중이더니 김치복과 박룡범이가 엄중한취됴를마치고 지난이십팔일에 일건서류와 함께 해주디방법원재령지청검사국(海州地方法院載寧支廳檢事局)으로 압송되엿다더라(안악)

穀物店에窃盜
손금고를훔처가

울산군울산면 시장동(蔚山郡蔚山面市場洞)남문밧게서곡물소매상점하는최용(崔鎔)에게는지난이십칠일오전세시경에 웬 절도가 침입하야현금백여원든손금고를도적하고 문을열어노코 갓슴으로 최씨의처가 잠결에 이상히생각하고 방안을 도사한결과 도적의흔적이잇고 금고가 업슴으로 곳 관할경찰에게 제출하야 순사사오인이 현장을검사하고사방으로수색한다는바 동여덜시경에 비인금고는그건너편나무배속에서 차저내고 동일오후두시경에형사의손에 주소불명한혐의자 한명이잡혀방금취됴중이라더라(울산)

窃盜常習犯逮捕

지난이십오일오전두시경에충남아산군염티면곡교리(忠南牙山郡鹽峙面曲橋里)수리조합(水利組合)인부안현삼(安鉉三)의집에 절도가 침입하야의복류칠십원어치를 도적하야 갓다는데 경찰서원은 대대적 활동으로범인을 데포코자 로력한결과이십칠일 양시장에서 본서심재욱(沈在旭)형사에게데포되엿다는데 범인은 공주군사곡면화월리(公州郡寺谷面花月里)주가(朱哥)(名未詳)라는자로 취됴중인바 이외에도 범죄사실이 다수한모양이라더라(아산)

람파휘

장년수해의참담한긔억이아즉도사려지지 아니한이때에▲경상도락동강(洛東江)연안일대에는또홍수가 낫다 밀양(密陽)부근의 일만팔천여명의 농민은 물속에 잠기고 오천여호농가에서는 우룸소리가 창뎐할뿐이라 낙동강、한강등의 치수(治水)사업에대한당국자의책임이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십다▲대관절해마다 당하는락동강의홍수를 막을능력이업는가혹은막어볼 성의(誠意)가 업는가▲국경방면(國境方面)에는 마적한놈을 막기 위하야 돈을 쓰듯 쓰면서 ▲정말인축생명에비상한관계가 잇는 치수사업에는동한히 하니이 무슨까닭인가